

32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람

Chapter

창 12:1~9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은혜찬송 169장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 성)

오늘 배울



말씀

1.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압니다.
2.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도 모두 성취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합니다.

마음 열기



〈Philadelphia, City Hall, William Penn Statue〉
필라델피아 시청, 윌리엄 펜 동상

미국 개척기 때의 사람인 윌리엄 펜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는 다른 백인과는 달리 인디언들을 존중해 주었으며, 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들이 그에게 농담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펜, 자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땅을 모두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주는 걸세.”

펜은 그들의 말을 믿고서 다음 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길을 떠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인디언들에게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약속대로 땅을 주게나.”

인디언들은 놀랐습니다. 농담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펜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실행해 준 것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그가 걸어서 돌아온 땅을 그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땅으로 인해 윌리엄 펜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창설자가 되었고, 오늘날 그 땅은 필라델피아 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든 간에 그것을 제안한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전 세계적인 대홍수 이후 세상은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들 역시 하나님을 떠났으며,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을 한 민족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으로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가나안 땅을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해 보면 모두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아브람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는 실제로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서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 11:8)

By faith Abraham obeyed when he was called to go out to the place which he would receive as an inheritance.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He 11:8)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히 11:8~12)

(롬 4:17~22)

(갈 3:6~9)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창세기 12장 1~4절을 세 번 읽고, 다음에 답해 봅시다.

1.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적어 보세요.
2.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보세요.
3.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을 평가할 때 결국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을 적어 보고 그 이유도 적어 봅시다.
4.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신앙생활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적어 봅시다.
5.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을 적어 보고 그 이유도 적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죽음을 위한 준비는?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자체의 결함
이나 운전자의 부주의, 기타 자연
현상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에 불과한 자동차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때마다
정비를 하고 필요한
부품을 교체 합니다.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 입니다.
그 죽음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인생은 성경을 통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 90:10)**

멕시코 인디언과 선교사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쿠이케텍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의 방언에 서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에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안 초기 선교사들은 미개한 인종의 언어라서 언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기면서 그들의 언어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두 단어를 구별하려는 문명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그들 언어의 불완전성은 문명인들에게 깊은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말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오히려 문명인들이 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뻔뻔스러운 존재, 즉 우리 자신을 외식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쿠이케텍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이 비록 미개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문명인들보다 진리에 더 근접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문명인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